

'무주산골영화제' 무료 프로그램 다채

키즈스테이지·넥스트 시네아스트·애니메이션 상영 등 진행

6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영화제 기간 동안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풍성한 즐길 거리로 가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주산골영화제' <키즈스테이지>가 올해도 여러 볼거리를 이벤트들로 다채로운 재미를 예고한다. 올해 <키즈스테이지>는 온 가족에게 행복한 놀이터를 선사하는 토이 브랜드 '나비타'와 함께한다. 전 세계 아이들과 킥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 프리미엄 장난감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볼거리로는 국내 유명 캐릭터 '베베핀'을 주인공으로 한 첫 장편 애니메이션 <베베핀 극장판: 사라진 베베핀과 핑크색 대모험>(2025)이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되며, 이어 베베

핀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과 생태, 우정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들과 그림책, 만화책을 원작으로 한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다수 상영하여 어린이 관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태권도진흥재단의 위대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서커스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서커스 공연 '서커스 게임즈', 북유럽 NO.1 치위생용품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조르단'과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양치 습관 교육 워크숍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다채롭고 재미있는 한국 영화의 풍경을 선보이기 위해 올해 신설된 <넥스트 시네아스트>의 전시 상영 프로그램도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실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다. 본 특별전은 박세영 감독의 작품

을 담은 전시 상영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시각 예술과 문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 집단 '소리그립'과 함께 기획,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에서 <숲> 섹션 야외상영이 진행된다. 매년 잊지 못할 낭만적인 밤을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숲> 섹션 야외상영은, 올해 아카데미 장편애니메이션상 수상작 <클로우>(2024)와 이를 연출한 김츠 빌발로디스 감독의 장편 데뷔 애니메이션 <어웨이>(2019)를 비롯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본 우화 <붉은 거북>(2016)을 함께 상영한다. 또한 영국의 판 아이론 로비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담아낸 뮤지컬 영화 <베러맨>(2024), 션 베이커 감독의 아름답고 따뜻한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 그리고 국내에서 입소문만으로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더 폴: 디렉터스 컷>(2024)이 상영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발굴 총력

전북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혜택 제공 위해 지속 노력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족친화인증기업(올해 기준 175개소)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관 및 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인센티브 발굴은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문화 등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

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해당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23년 이후 64개 인센티브 혜택(△의료 11개소 △교육 3개소 △숙박·체험 12개소 △관광 5개소 △의식·식품 28개소 △기타 분야 5개소)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는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다양한 할인과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도들도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 진료비 할인 혜택과 전주기전대학 평생교육원 수강료, 금산사 템플 스테이 참가비 할인 등이 있으며, 외식 및 식품기업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까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정희 원장은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이 확대될수록 지역사회의 전반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며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발굴, 확대는 물론 관련 관련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서울역 맞이방서 '제95회 춘향제 사진전시회' 열려



남원시는 지난 22일 서울역 맞이방에서 제95회 춘향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난 22일 서울역 맞이방에서 제95회 춘향제 사진전시회를 개최해 서울역을 찾은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남원시 홍보대사인 방송인 개그맨 김범준 씨가 MC로, 제95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글로벌 앰버서더 수상자 김소연씨와 후원기업 코빅스상 수상자 박세진 씨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회는 제95회 춘향제의 주요 장면들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을 통해 축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나누고, 전통문화도시 남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막식, 공연 등 축제의 다채로운 모습을 물론, 특히 시간 4,000여 명이 참여한 '내동 길놀이'의 활기찬 현장을 사진들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소년 꿈·희망 연주 'Aria of Dreams'

부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 '꿈의 향연' 선정

부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 '꿈의 향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전국 합동프로젝트에 공식 합류하며 국비 2300만원을 확보해 지역 청소년 음악교육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부안군의 꿈의 오케스트라 주제는 'Aria of Dreams'로 단순한 연주 무대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성장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하나의 서사이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Aria of Dreams'는 부안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푸른소리 중창단, 트럼펫터 콰텟, 성악가 테너 이승희 등과 협업하며 만들어진 특별한 무대를 지난 24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전석 무료공연으로 진행했다. 공연은 특히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빛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청중에게 희망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감성적 무대로 펼쳐졌다. 국비 확보와 프로젝트 선정은 부안군이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부안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순창문화원, 청소년 대상 '우리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진행

순창문화원은 지난 23일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을 직접 찾아보며 조상들의 슬기와 덕망을 재인식하고, 청소년들에게 고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하루 종일 순창군 관내 주요 문화유적지를 차례로 둘러봤다. 첫 번째 탐방지인 적성초등학교의 광복소나무를 시작으로 남원양씨 종택, 구양정 등 조선시대 유적을 견학했다. 오전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순창항교를 거쳐



순창정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증식을 했으며, 이후에는 토굴과 발효테마파크를 차례로 탐방하며 순창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와 발효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예술회관, 환상의 마술쇼 '부안매직페스타' 공연

부안예술회관은 오는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부안매직페스타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부안매직페스타는 부안예술회관 기획 공연으로 국내 최정상급 마술사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대형 마술 콘서트다. 공연은 풍환적인 시각효과와 아트버블쇼, 의상이 순식간에 바뀌는 고난도 퍼포먼스인 커스텀체인지, 마술과 서커스를 결합한 매직서커

스, 관객에게 마술 도구를 나눠주는 체험 등으로 구성돼 관객과의 소통과 몰입감을 높인다. 특히 김현형, 유원석, 최강보, 이창민, 오은영, 이진규 등 각기 다른 개성과 무대를 가진 마술사들이 출연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본 공연은 전석 만원이며 부안군민은 90% 할인돼 1000원이다. 좌석예매는 현장발권 및 티켓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기에 맞는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